

천사대교 건너 섬으로 ... '관광 전남' 날개 달았다

신안 암태면 서각박물관 하루 10명에서 5000명으로 늘어
년 관광객 여수 1300만·순천 1000만 명 ...전남 전국 2위
광주·전남 순환버스 '남도한바퀴' 표구하기 전쟁 인기몰이

신안군 암태면 에로스 서각박물관 직원들은 요즘 '비상' 근무중이다. 천사대교 개통 이후 박물관을 찾는 관람객들이 밀려들면서다. 직원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관람객들이 끊이지 않아 하루가 어떻게 갖는 지 모를 정도"라고 말한다. 요즘 서각박물관에는 천사대교 개통 전엔 하루 10명이 채 안되던 관람객들이 무려 5000명 넘게 찾고 있다. 개통된 다리를 보러 왔다가, 또는 이어진 다리를 건너 암태, 암태, 자은, 팔금 등 인근 섬을 다녀오는 길에 박물관을 찾는 것이다. 천사대교 개통 이후 매일 박물관 주차장에 들어오는 관광버스만 수십대에 달하면서 주차 전쟁도 벌어지고 있다.

전남에 관광객들이 밀려들고 있다. 열악한 관광 인프라를 개선하고 천혜의 해양·관광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는 등 '자생력'을 길러 온 것이 관광산업 활성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8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을 찾은 관광객들은 지난 2017년 5079만명을 기록, 처음 5000만명 시대를 열었다. 전국적으로도 경기도(7643만명)에 이어 전국에서 2위로, 전년도 3위에서 한 계단 상승했다.

전남 관광객은 지난 2014년 3196만명을 기록한 이후 3968만명(2015년)→4278만명(2016년) 등으로 연평균 10% 이상 성장하고 있다. 당장, 서남권의 경우 천사대교 개통으로 관광객 유인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천사대교가 개통된 4일 이후 천사대교부터 인근 농업기술원까지 5.5km 구간은 주말이면 밀려드는 관광객들 차량으로 극심한 정체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조만간 목포에 해상케이블카가 개통되면 전남 평균 관광객의 47.6%(2415만명)를 차지했던 여수·순천 등 동부권으로의 관광객 편중 현상이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다.

동부권인 여수·순천은 대한민국 대표 관광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여수는 지난해까지 4년 연속 1300만명 이상인 찾는 관광도시로 성장했다. 지난 2017년에는 한 해 여수를 찾은 관광객들이 1508만을 넘어섰다. 해상케이블카, 여수

밤바다, 낭만포차, 끊이지 않는 버스킹 등이 어울리면서 이뤄낸 성과로, 여수는 올해도 1300만명 이상이 찾을 것으로 보고 있다.

순천도 906만명(2017년)의 관광객이 찾는 도시로 발돋움했다. '순천 방문의 해'인 올해에는 1000만 관광객 유치를 내걸고 주요 관광지 입장료를 20% 깎아주는가 하면, 3대 시민 운동을 추진중이다.

이들 지역 뿐 아니다. 전남도가 자랑하는 광주·전남 관광지 광역순환버스 '남도한바퀴'는 표가 없어서 못 팔 정도다. 지난해에는 22개 사군을 경유하는 26개 코스를 3만8640명이 이용, 전년도에 견줘 24% 늘어났다. 올해도 출발지와 운영시간을 다양화하면서 1박 2일 상품 등을 내놓고 지난달 30일 28개 코스의 운행에 들어간 상태로, 현재 87%의 탑승률을 기록하며 '인기몰이' 중이다.

해의 관광객 증가도 눈길을 끈다. 전남을 찾은 해의 관광객은 지난해 24만명(잠정)으로 파악됐다. 2017년(17만명)보다 크게 늘었는데, 무안공항 활성화·크루즈 여행객 유치 등이 한몫을 했다. 한 때 8만 6000명(2016년)에 달했던 중국 관광객은 지난 2017년(4만명)보다 늘어난 4만1000명(2018년 말 잠정)을 기록했다.

전남도는 올해도 다양한 관광지 개발을 비롯, '남도여행 으뜸상품', '전남에서 살아보기' 등 관광자원 상품·콘텐츠 개발, 마케팅 활동 등을 통해 올해 5300만명 유치를 내서는 한편, ▲2020년 5500만명 ▲2021년 5700만명 ▲2022년 6000만명 등으로 관광객들의 발길이 전남으로 밀려들게 한다는 구상이다.

서남해안 해양관광자원을 연계한 '신성장 관광벨트 조성 계획'과 천사대교와 목포 해상케이블카 등을 연계한 '서남권 관광마케팅 추진계획'을 마련, 추진중이다. 또 중국·일본, 동남아시아와 러시아 의료관광시장을 대상으로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를 내거는가 하면, 무안공항 정기노선을 15개까지 늘려 2만명의 크루즈 여행객 유치를 위한 마케팅 활동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김지우 기자 dok2000@kwangju.co.kr



신년 축제 '비스카 자트라' 중세 네팔 말라(Malla) 왕조의 수도 박타푸르(Bhaktapur)에서 열린 신년축제 '비스카 자트라'(Bisket Jatra)에서 5만여명의 방문객이 축제를 즐기고 있다. 네팔의 공식달력은 '비크람력'으로 올해가 2076년이며 지난 14일이 신년(1월1일)이다. 참가자들이 협동해 2m가 넘는 수레를 끌고, 30m 높이의 나무기둥을 세우는 모습이 이색적이다. 네팔은 각 소수민족과 종교별 축제가 심 없이 열려 '축제의 나라'라고도 불린다. 축제는 다민족 국가인 네팔 국민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네팔 박타푸르=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100여개 민족·백송이 꽃 신비로운 '神의 나라'

아시아 문화원류를 찾아서
열 번째 여정 '네팔'을 가다

"우리는 백송이의 꽃, 하나로 통합된 우리 네팔인. (중략) 지식과 평화와 평원과 언덕과 높은 산의 땅이며, 나눌 수 없는 사랑 하는 우리의 모국 네팔이여. 여러 민족, 언어, 종교, 믿을 수 없는 문화들이 피어난 땅. 우리 모국 네팔이여 영원하라!"

<관련기사 11면>

네팔의 국가 '백송이의 꽃'에는 '네팔'이라는 나라의 의미가 그대로 담겨있다. 100여개 민족이 각기 다른 전통과 문화, 풍습을 이해하며 살아가는 나라, 힌두교와 불교, 이슬람교까지 종교에 대한 배척 없이

모두가 공존하며 문화의 다양성을 꽃피운 나라가 네팔이다.

2019년 4월 9일, 광주일보 취재진이 이번엔 '신(神)의 나라'에 발을 내디뎠다. 광주일보 대기획 '아시아 문화원류를 찾아서' 그 열 번째 여정을 시작하기 위해서다.

지난 2012년 시작한 '아시아 문화원류를 찾아서'는 광주일보 창사 60주년을 기념하고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에 맞춰 아시아 문화의 뿌리를 조명하기 위한 작업이다. 지난 7년간 우즈베키스탄을 출발해 카자흐스탄, 인도, 캄보디아, 베트남, 태국, 라오스, 말레이시아, 몽골의 이야기를 담았던 광주일보는 올해 창사 67주년을 맞아 '신비로운 네팔'의 스토리를 찾아 나선다.

그리스·로마신화와 이슬람이야기, 탈무드 등을 영화와 문학, 미술 등으로 반복하고 변주하면서 상상력의 한계를 드러낸 서양과 달리 아시아는 태고의 신비를 간직한 전설과 신화, 설화, 민담, 건국신화 등 그야말로 '스토리의 광맥'을 품고 있다. 이 모두가 영화와 드라마, 게임 등 문화콘텐츠에 활용할 수 있는 '원석'이나 다름없다.

네팔의 문화 원형은 '어우러짐'에 있다. 전혀 다른 것이 모이고 섞이는 융합의 과정을 거쳐 안전하고 온전한 자신만의 문화를 만들어냈다. 세계의 지붕 히말라야가 안고 있는, 훼손되지 않은 자연을 간직한 채 종교와 문화의 꽃을 띄워낸 네팔로 독자 여러분을 초대한다.

/네팔 박타푸르=박기용 기자 pboxer@

창사 67주년 특집 32면 발행

- 최진석의 새 말 새 몸짓 ▶7면
- 광주일보·예향의 67년 발자취 ▶8·10면
- 아시아 문화원류를 찾아서 - 네팔 ▶11면
- 지구촌 최대의 수영 축제 ▶15~18면
- 손흥민, 토트넘 챔스 4강 이끌다 ▶28면

64회 호남예술제 국악 입상자 명단 ▶25면

사랑과 감사의 65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19]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2019 광주FINA세계수영선수권대회 공식후원은행

지역이 원하는 금융

자
안
다
자
란
자
란
한
다

DIVE INTO PEACE

평화의 물결 속으로

광주은행이

2019 광주FINA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합니다.

기간 2019. 7. 12 (금) ▶ 28 일

광주은행